

예술가의 삶과 무덤 속의 길



홍경안 의
시시일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존의 경계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가들의 상황을 설명하면 적지 않은 이들이 대체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으레 '그래도 행복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예를 들면 "연간 평균 수입이 600만 원 대라는 것은 지나치게 적는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하네요.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인데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니 행복하지 않을까요?"라는 식이다.

행복이란 저마다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에 선뜻 정의하기 곤란하나, 분명한 건 좋아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취미와 전업의 영역이 다르듯, '좋아하다'가 '좋다'가 되고, '행복하다'가 '행복'이 되는 것 사이엔 만경창파(萬頃蒼波)가 놓여 있다.

사실 종이처럼 얇고 솜털처럼 가벼운 재주로 생산한 것을 예술의 전부로 착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예술가는 행복하지 않다. 배우이자 연출가인 김평곤도 비

슷한 애길 한 적이 있지만, 매일 예술가들을 만나는 필자 역시 예술이 그들에게 약속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만한 행복이 그들의 삶 내부 어디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음을 본다.

오히려 예술가들은 예술을 이어갈수록 비탄과 암울에 젖는다. "그래, 난만의 일,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위협에 몰아넣었고, 그것 때문에 내 이성의 절반은 암흑 속에 묻혀버렸다."는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체념처럼 어두운 불안이 쉽게 잊혀진다. 행복은 커녕 절망이 지배하고 두려움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렇다. 무언가를 창작하는 예술가에게 예술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공허한 공간 앞에서 체감하는 상실된 좌표와 무언가를 꼬집어내야 하는 막막함, 무덤 속의 평화와 진배없는 작업실의 무게감은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결코 알 수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 행복한 것이라 여겨지는 예술가는 경제적 인색함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예술적'일 수는 있어도 예술은 불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곤 그들은 가진 것 또는 가질 것이 너무 없다. 명예, 지위, 신분 등 사회 속 모든 인색함은 거의 그들 몫이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왜 그토록 힘들

고 고통스러운 삶을 버리지 않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에 가깝다. 숙명이랄까, 한 번 내딛은 발걸음은 물리기 어렵다. 애써 빠져나갔다가도 되돌아오고, 예술이 평생 마셔야 할 독약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술가의 삶은 선택이 아니다. 예술의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중독된 이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운명과 기질이 부르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술가로서 있음으로써 확인된다.

이처럼 예술가가 예술인임과 동시에 현실임을 강조하기엔 대중에게 대타야 할 미주가 많은 대신, 예술가는 단지 예술가임을 받아들인 대가치곤 여러 면에서 혹독한 삶을 산다. 심지어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해야 지원을 받고, 처지의 이해가 곧 감성팔이로 치부되는 동일계 내 일부 태깅스러운 시선도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함없이 작업을 한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비극을 인용하자면 생과 사의 기로에서조차 예술이란 것을 한다. 남들은 잘 알아주지도 않는 예술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니 어찌 예술가의 삶을 '천형(天刑)'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광해관리공단 이청룡 신임 이사장 취임 이청룡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한국관광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청룡 신임 이사장은 강원 원주교과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2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상무와 부대표를 지냈으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삼양식품 사장, 딜로이트컨설팅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관광관리공단



한국노바티스,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1일 '제22회 노바티스 지역사회 봉사의 날'을 맞아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사회 봉사의 날'은 노바티스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전하고자 전세계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국노바티스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단상



기지수첩
안상미
(파이낸스&마켓부)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데도 취업준비생에게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지 말고 어디든 도전하라고 말할 수 있나."

"은행은 주식회사다. 기업과 주주에 이익이 된다면 누구를 채용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간섭이 지나치다."

지난 주말 금융권은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 발표로 다시 뒤숭숭해졌다. 은행 채용비리 특별조사 당시 혐의가 나오지 않았던 신한은행마저 이번엔 비리를 입증할 몇몇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초 우리은행으로 금융권 채용비

리 논란이 불거진 지 몇 달이 지났다. 일부 금융사는 인사 담당자는 물론이고 최고경영자(CEO)까지 구속돼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젊은 층,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이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실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 때문에 취업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들의 부모 역시 자괴감에 빠졌다. 몇 년을 취업전선에서 헤매고 있는 자식이 힘없는 부모때문인 것은 아닐까, 뒷바라지가 힘들더라도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밀어줬어야 하는 건 아닌지 후회가 된다고 했다.

반면 최근의 채용비리 검사를 지나친 간섭으로 보는 이들의 시각은 이렇다. 공

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니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신입직원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 지원자의 부모가 재력가라서 은행에 거액의 몽치돈이 들어온다면, 아니면 기업체 임원이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도 한다.

그들의 의견을 심분 반영해 은행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 다만 조건은 있다. 투명하게 밝혀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입사 우대 조건: 부모 금융자산 000억원 이상, 매출 000억원 이상 기업체 임원급 이상, 자사 그룹 계열사 임원 이상 자녀는 서류 전형 면제'. 이왕이면 사업보고서에 결과도 산출해주면 좋겠다. '우대 조건에 따른 은행 순이익 00% 증가' 등으로 말이다.

/smahn1@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부행장 릴레이 농촌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부행장을 중심으로 농민기 릴레이 일손돕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박철홍 여신심사부 부행장은 지난 9일 임직원 40여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외가집마을을 찾아 옥수수 재배농가의 옥수수 심기 작업을 돕고, 하천변을 정리하며 마을환경 개선작업 등을 실시했다. 농협은행 전 임직원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순수분, 준공축하 쌀 기탁식 순수분은 지난 11일 전라북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소재한 분라이프푸드랩에서 익산시에 지역 아동들을 위한 쌀을 기부하는 '준공축하 쌀 기탁식'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탁한 쌀은 익산시를 통해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 중 한 곳인 '시온육아원'은 순수분이 직접 찾아가 쌀을 전달했다. /순수분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정책조정과장 김준민 △ 행정관리과장 이상로 △ 국정과제관리과장 이승규 △ 규제총괄과장 김달원 △ 규제정책과장 이한형 △ 청렴법무과장 이상범 △ 교통정책과장 김희순 △ 사회정책총괄과장 송민섭 △ 안전정책과장 정은영 △ 시

- 민사회협력행정관 김민정 △ 뉴미디어행정관 양지연 △ 주한미군지리지지원단 정책총괄팀장 정동혁 △ 국민생명지킴이추진단 부단장 김규형 △ 국민생명지킴이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권대철
-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법제국장 김기열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박승국 △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박선구 △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홍성호 ◇연구기획위원 △ 산업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종광

부음

▲신영식씨 별세, 신옥(프로야구 전 LG트윈스 사원)씨 부친상 = 13일 오전 7시,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90-9442

한국은행

초등학교 교사 대상 경제 직무연수 실시

한국은행은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제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하계 초등학교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정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로 한은 서울 본부에서 진행된다. 총 40명 모집을 모집한다.

경제·금융 관련 주요 이슈 및 이론 강의, 체험형 경제교육 실습 및 시범강의,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진행된다. 연수 이수 시 2학점(30시간)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로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봉준 기자 bj35sea@



'2018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발대식 아디다스코리아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아디다스 코리아 본사에서 '2018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3일 전했다. 마이드림 FC는 2013년 시작돼 6년째 꾸준한 베이스캠프의 수를 늘리며 운영되는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아디다스코리아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710206
	2002년 5월 28일 제 395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715011
	2017년 3월 09일 제 0049호